

■ 2025년 공연예술창작주체 공연비평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주체 공연비평 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4년 12월 2일 (월)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4년 12월 9일 (월) 13: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건표, 김금수, 성기숙, 오영주, 이미배, 임기현, 전지영, 황진수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주체' 비평 사업은 연극, 뮤지컬(3건), 무용(7건), 음악(3건), 문화일반(3건) 총 16개 단체가 지원하였습니다. 비평 사업 신청금액은 총 590백만원으로, 사업별 신청비율을 고려하여 308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공연예술계의 비평 활성화와 장르별 발전적 담론형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평지, 학술연구, 디지털 웹진 활동 등 단체의 목적에 따라 활동의 방향성은 다양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년 동안 장르의 특징을 살려 지속되어 온 비평지(매체)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본 사업은 동시대에 지속가능할 수 있는 비평의 담론을 생산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사업의 목표와 예산의 효율성, 지속가능한 비평지로서의 역할과 단체의 적절성 여부를 심도 있게 서류심의를 거쳤으며 2차로는 단체를 대상으로 방향성을 확인하는 심층적인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고려되었던 것은 신청계획서에 공연제작, 창작공간, 공연비평 3개 사업을 모두 신청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였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3개 사업을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하나의 단체에 과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2차 인터뷰를 거쳐 타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보상체계 정착을 위한 원고료 기준이 예산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였습니다. 원고료 책정의 적절성을 발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한 심의과정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일반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성격이 전문 비평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온라인 매체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장르의 비평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공연예술 환경의 전반을 다루는 월간 잡지 성격이 다소 포함된다 하더라도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를 위해 지면을 폭넓게 활용해오고 있다는 점으로 2차 심의에 포함해 심층적인 인터뷰 과정에서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뷰 심의에서는 사업계획의 취지와 목적, 발간일의 적절성, 편집위원의 인적 구성과 전문성, 인쇄비용의 적절성, 비평지로서의 담론형성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성과 사업방향의 체계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술연구 활

동 중심의 사업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한계도 있었고, 일정하지 못한 발행일과 편집 환경, 전문인력 부족 등 전문 비평단체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평문화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전문매체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학술적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올해 지원 단체들 중에는 온라인 웹진을 통한 비평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단체들이 증가되었다는 점, 웹진으로 전환하고자 계획하는 단체 비중들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공연예술의 비평 환경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웹진비평지는 회원자 수, 구독 규모, 웹진 시스템과 확장성, 비평코너 수요자의 규모와 유동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발간사업을 통해 매년 단체가 사업성과 환류를 통해 발전적으로 공연예술의 비평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지, 발행인과 편집주간의 방향성은 적절한지와 장르별 비평게제 횟수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통해 6시간 이상의 심층 인터뷰 후 심의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선정단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토론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총 14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다년 지원단체로는 연극뮤지컬과 무용분야에서 각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추가공모 사업으로 전담심의위원 제도가 시범 운영된 후 2025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장되었기에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주체 비평 사업에 참여한 전담심의의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선정단체들은 공연예술 비평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고료 권고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